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02-2133-7370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02-2133-7386
사진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진있음 <input type="checkbox"/> 쪽수 : 7쪽	담 당 자	김재희	02-2133-7391

서울시, 실태조사 통해 고독사 위험 1인가구 24만 가구 추가 발굴·지원

-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자치구와 함께 진행
- 총 5만6,248가구 조사 완료, 고독사 위험군 2만4,440가구 발굴·복지 연계
- 건강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관련 높은 수요 확인… 서울시 고독사 예방 정책수립에 활용
- 거부자·부재자 등 조사 미완료자 약 6만명에 대해 '23. 9월부터 지속조사로 촘촘한 발굴 추진

-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독사 위험 1인가구 2만4,440가구를 추가 발굴·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 본 실태조사는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 25개 전 자치구와 함께,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필요시 비대면 병행)으로 5만 6,248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 이번 조사는 2021년 실시한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로, 당시 조사 미완료자(거부, 부재 등)와 각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정한 고립 위험 가구 등 14만 2,37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2021년 최초로 실시한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는 당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정한 고립 위험 가구 약 14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고독사 위험군 약 3만6천 가구를 발굴·지원한 바 있다.

□ 이번 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군 2만4,440가구(고위험 166, 중위험 3,256, 저위험 21,018)를 발굴하였다.

< 조사 완료자 중 고독사 위험군 : 24,440가구 >

(단위 : 가구)

구 분	조사완료자	고독사 위험군 계	고독사 위험군			비위험군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계	56,248	24,440	166	3,256	21,018	31,808
2022년 신규조사	48,390	23,280	159	3,003	20,118	25,110
2021년 위험군 재분류	7,858	1,160	7	253	900	6,698

○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정된 2만4,440가구의 고독사 위험도 측정항목 분석 결과, 건강·소통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71.9%)가 가장 많았으며,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 나눌 사람이 없는 경우(49.3%), 1주일 간 소통 횟수가 1회 이하인 경우(33.5%)가 뒤를 이었다.

(단위 : 가구)

고독사 위험군 판단기준 (중복 가능) ※ 기준 : 고독사 위험군 24,440가구 대비 비율								
① 최근 10년간 실패 상실 경험 2회 이상	② 지난 1주일 하루 평균 식사 1회 이하	③ 지난 1주일 외출 1회 이하	④ 지난 1주일 소통 1회 이하	⑤ 지난 1주일 음주 (블랙아웃) 1회 이상	⑥ 아플 때 돌봐줄 사람 없음	⑦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나눌 사람 없음	⑧ 10년간 이사 10회 이상 또는 거주지 미상	⑨ 이용 중이던 돌봄 서비스 중단
7,073 (28.9%)	2,782 (11.4%)	6,033 (24.7%)	8,184 (33.5%)	1,956 (8.0%)	17,569 (71.9%)	12,052 (49.3%)	1,444 (5.9%)	990 (4.1%)

-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연계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완료자에 대하여 필요 시 ▲기초수급(기초생활보장법, 법정 차상위 등), ▲긴급복지(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돌봄SOS센터 서비스 연계(가정방문 등), ▲기기설치(스마트플러그, 서울살피미앱 등), ▲안부확인(우리동네돌봄단, AI안부콜 등), ▲사례관리, ▲민간후원성(금)품 등 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42,317건을 신규 또는 추가로 지원하였다.

조사완료자 56,248가구 대상 복지서비스 연계 조치 : 42,317건
[신규 또는 추가 지원 실적만 집계]

(단위 : 건)

합 계	기초수급	긴급복지	돌봄SOS	기기설치	안부확인	사례관리	민간서비스	기타
42,317	2,247	1,089	1,775	1,221	15,999	416	16,195	3,375

- 기초수급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서울형 기초보장 포함), 법정 차상위
- 긴급복지 :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돌봄SOS : 돌봄SOS센터의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등
- 기기설치 : 스마트플러그, 서울살피미앱, IoT 안전관리솔루션 등
- 안부확인 : AI안부확인서비스, 우리동네돌봄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 사례관리 : 문제 및 욕구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시 사례관리 대상 선정
- 민간서비스 : 민간 후원성품 지원, 민간기관 서비스 자원 신청 등
- 기 타 : 1인가구지원센터, 50+센터 등 외부 지원기관 프로그램 안내 등

-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신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수급 이력이 없는 1만4,447가구를 조사하고 이 중 4,798가구를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2,980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 4,204건을 신규로 연계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한 신규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 성과
(조사완료자 56,248가구 대상 복지서비스 연계 조치 42,317건 내 포함된 실적)

○ 복지서비스 미수급자 중 고독사 위험군 : 4,798가구

(단위 : 가구)

구 분	인 원	고독사 위험군 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비위험군
복지서비스 미수급자	14,447	4,798	47	663	4,088	9,649
신규 서비스 연계자	2,980	1,585	11	278	1,296	1,395

○ 복지서비스 미수급자 신규 서비스 연계 조치 : 4,204건

(단위 : 건)

합 계	기초수급	긴급복지	돌봄SOS	기기설치	안부확인	사례관리	민간서비스	기타
4,204	755	232	113	135	1,404	55	959	551

이번 실태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신규 발굴 및 지원 사례

<case1> #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으나 가족 관계가 단절되어 홀로 살던 A씨(60대, 마포구)는 20년 넘게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후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하였고, 지체장애로 거동이 어려워 3,000리터 분량의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음료 등에 의존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조사 기간 중 실태조사 홍보 현수막을 보고 유선으로 동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A씨는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및 서울형 긴급복지(의료),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사업(의료) 등 공적급여를 연계 받았고, 돌봄SOS 주거환경 개선서비스(청소3회)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었다.

<case2> # 자녀 없이 이혼한 1인가구인 B씨(60대, 강동구)는 이전까지 근로활동을 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었으나 일을 그만둔 후 안면마비 증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져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다. B씨는 '21년 실태조사로 발굴된 대상자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심하여 자세한 조사와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안내와 더불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는 동주민센터의 지속적 접촉 시도 끝에 본인이 먼저 동주민센터로 전화, 유선상담 후 내방상담까지 진행하였다. 그 결과 B씨는 기초생활수급(주거) 및 국가형 긴급복지(생계, 연료비) 지원은 물론 안전취약계층 점검대상 추천, 1인가구지원센터 회원가입 및 반찬 지원까지 연계 받게 되었다.

- 이번 실태조사에서 신규 조사한 4만8,390가구의 항목별 주요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태조사 항목별 주요 응답결과 : 48,390가구 대상

- ▶ 남성은 47.7%, 여성은 52.3%로 여성비율이 근소하게 높았음
- ▶ 연령은 60대 33.3% > 70대 27.6% > 80대 이상 18.4% 순
 - 조사 완료자의 대부분(97.5%)이 50대 이상인 것은 당초 실태조사가 50대 이상 주거취약지역 거주자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자치구의 고독사 위험 자체 추정 가구도 주로 50대 이상이었기 때문
- ▶ 1인가구 사유는 이혼이 42.5%로 가장 높았고, 가족이 없는 경우는 12% 였음
- ▶ 직업이 없는 가구가 76.6%로 직업이 있는 가구(23.4%)의 3배 이상
 - 조사 대상 가구의 소득 상황이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공적급여 지원, 일자리 연계 정책 등의 필요성 확인함
- ▶ 주거유형은 다가구(지상) 30.2% > 임대 아파트 21.4% > 다가구(지하) 17% 순
- ▶ 주거보유 유형은 월세가 66.9%로 가장 많고, 자가가 8.5%로 가장 적음
- ▶ 주거환경은 대부분 양호(85.9%)하였으나, 위생·안전이 불량한 경우도 11.1%로 확인
 -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주거분야 지원사업의 필요성 확인
- ▶ 조사 완료자의 41.5%는 건강상태가 양호하였으나 과반수(55.1%)가 장애나 질병 보유
 - 건강 관리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 확인
- ▶ 사회활동 주요 교류대상은 지인이 42.9%로 가장 많았으나, 기타 및 없음도 20% 차지
 - 정기적 안부확인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의 필요성 확인

- 한편 신규조사 이외에도 2021년 조사에서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 7,858가구를 재분류한 결과, 사망·전출·사정 변경 등으로 6,698가구 (85.2%)가 고독사 위험군에서 제외되었다.

- 재분류 사유는 사정변경 56.1% > 타 지자체 전출 24.2% > 관내 타 동 전출 10.7% 순으로 나타났다.

- 이로써 2021년과 2022년 두 번의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에서 파악 중인 전체 고독사 위험군은 5만2,718가구로 확인되었다.

< 2021~2022년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군 규모 : 52,718가구 >

(단위 : 가구)

구 분		인 원	고독사 위험군 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비위험군
총 계		84,526	52,718	1,545	9,486	41,687	31,808
2022년 신규조사		48,390	23,280	159	3,003	20,118	25,110
2021년 고독사 위험군	소 계	36,136	29,438	1,386	6,483	21,569	6,698
	재분류	7,858	1,160	7	253	900	6,698
	기존 위험군	28,278	28,278	1,379	6,230	20,669	-

- 고독사 위험군 성별 : 남성 53%(27,951명), 여성 47%(24,767명)
- 고독사 위험군 연령 : 60대(36.1%) > 70대(26.5%) > 50대(19.4%) 순

계 (출생연도)	20대 이하 (1993년 이후)	30대 (1983~1992)	40대 (1973~1982)	50대 (1963~1972)	60대 (1953~1962)	70대 (1943~1952)	80대 이상 (1942년 이전)
52,718	38	112	608	10,237	19,010	13,967	8,746
100%	0.1%	0.2%	1.1%	19.4%	36.1%	26.5%	16.6%

- 한편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었으나 거부, 부재 등으로 조사하지 못한 약 6만명(거부자 26,414, 부재자 10,606, 기간 내 미완료자 22,595)에 대해서는 2023. 9월부터 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촘촘하게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상세일정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정하되, 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 또한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6월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은 “금번 실태조사의 성과는 복지사각지대 중에서도 가장 돌봄이 필요한 고립 위험 1인가구의 건강·주거 등 주요생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고독사 위험 주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에 맞추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내에 고독사 위험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사 목적 :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조사 기간 : 2022. 10월 ~ 2023. 1월
 - 계획 통보('22.10월, 市) ⇒ 실태조사·복지서비스 연계('22.10~'23.1월, 區) ⇒ 자치구 실태조사 결과 수합 및 정리 (~ '23.6월, 市)
- 조사 주체 : **쏘 동주민센터 공무원** ※ 결과는 자치구 복지부서 담당
- 조사 방법 : **대면 조사 원칙, 비대면 병행 가능**
 - 가정방문, 동주민센터 내방 안내 등 활용하되, 필요시 전화 조사 가능
- 조사 내용 : '1인가구 실태조사표' 의거 조사

조사 항목	'1인가구 실태조사표' 조사 내용
기본 현황	성명, 생년월일(연령), 성별, 주소·연락처, 보호구분(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여부 등)
사회적 관계망	혼인 여부, 가족 및 지인 현황, 사회 활동(교류) 정도
경제 상황	직업 유무, 소득 규모
주거 현황	유형(임대주택 등), 보유형태(자가, 전월세 등), 주거환경(양호, 불량 등)
건강 상황	건강상태 정도, 장애 및 질병 유무
주요문제 및 욕구	경제적문제, 건강(신체,정신)문제, 일상생활지원(식사,돌봄 등)
고독사 위험도 (5개 기준, 90점)	1. 실패·상실감누적(10), 2. 고립적일상(40), 3. 사회적고립(20), 4. 이동성 높은 생애(10), 5. 돌봄과 지원 중단(10) - '고' 위험군 (70점 이상), '중' 위험군 (40~60점), '저' 위험군 (30점 이하), 해당 없음 (0점)

- 조사 대상 :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142,376가구

실태조사 대상		상세 내용
2022년 신규조사	① '21 주거취약지역 중장년(50세 ↑)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시 조사미완료자 : 75,576가구	○ 거부자, 부재자, 미완료자 등
	①-1 '21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시 비대상자 : 7,523가구	○ 실제 1인가구가 아니거나, 사망, 전출, 주소불명 등 비대상자는 자체 판단 후 조사 실시
	② '21. 12월말 기준 자치구 자체 추정(고독사 위험)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 40,516가구	○ '21년 실태조사 대상에 미포함 되었으나, 자치구에서 자체 추정 중인 사회적 고립가구
	③ '22 자체 실태조사 계획에 따른 조사 결과 : 9,685가구	○ 자체 실태조사 계획이 있는 자치구는 조사 실시 후 서울시로 결과자료 제출
	④ 실태조사를 희망하는 주민 : 1,218가구	○ ①~③⑤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 대상 조사 실시한 경우
재분류	⑤ '21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 조사완료자 재분류한 경우 : 7,858가구	○ '21년 조사 완료한 위험군중 재분류 필요 가구 - 사망, 취업, 이사 등으로 위험군 변경이 필요한 경우